

한화·SK에 5패... 호랑이 가을야구 '가물가물'

SK전 연장 혈투 끝 5-9 패배
부실한 투·타 '총체적 난국'
하위권 팀들과 7연전 성적 초라
시즌 중반 5위 두산과 4.5 게임차



'호랑이 군단'의 5강 꿈이 멀어졌다.

더블헤더 포함 주중 한화와의 4연전에서 1승 3패에 그쳤던 KIA가 SK와의 주말 3연전에서도 1승 2패를 기록했다.

SK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이 된 11일 경기에서는 8회 나온 나지완의 역전 투런포의 기세를 잊지 못하고 연장 12회 혈투 끝에 5-9 패배를 기록했다.

5위 두산과 4.5경기 차가 되면서 KIA의 '가을잔치'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밀었던 가능성이 홈런에 흔들렸고, 수비에서 승리가 됐다.

앞서 24경기에서 피홈런 3개만 허용했던 가능성이지만 SK의 3번 최정, 4번 로맥에게 '한방'을 내줬다.

1회 2사에서 최정에게 던진 145km 직구가 좌측 담장을 넘어갔고, 3회 1사 1루에서 마주한 로맥에게는 142km 직구를 통타당했다.

가능은 4회 2사에서 1루에서 중견수 최원준의 아쉬운 수비 속 톱타자 최지훈에게 중견수 키 넘는 3루타를 내주는 등 5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매 이닝 주자가 나갔지만 '0'의 행진을 이어가던 KIA가 5회 어렵게 득점에 성공했다. 1-4로 뒤진 7회말에 터져 최형우의 연속 안타를 발판 삼아 1점 차까지 추격했다.

3-4로 뒤진 8회말 SK 마무리 서진용이 한발 앞서 출격했다.

신재웅이 2사에서 최형우에게 우전안타를 맞아 서진용이 등판해 나지완과 마주했다.

조구 스트라이크 뒤에 나지완의 방망이가 헛돌았다.

다. 불리한 볼카운트였지만 나지완이 몸쪽으로 높게 들어온 3구째 실투를 놓치지 않았다.

서진용의 144km 직구를 잡아당겼고 5-4로 승부



KIA 선수들이 1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0 KBO리그 SK 와이번스와 경기에서 연장 12회 초 실책과 폭투로 4실점하자 씩씩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KIA태이거즈 제공)

를 뒤집는 역전 투런이 됐다.

하지만 9회에 KIA가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준영이 선두타자 박성환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박준표가 투입됐지만, 최정에게 안타를 내줬다. 이어 로맥의 타석 때 좌익수로 자리를 옮긴 최원준이 공의 방향을 놓치면서 연속 안타,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KIA가 대타 오준혁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면서 만루 작전에 나섰다.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이재원의 땅볼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했고, 김규성이 홈으로 공을 던져 원아웃을 만들었다. 이어 포수 김민식이 1루로 공을 던져 병살타를 완성했다. 박준표가 김강민을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역전은 허용하지 않았다.

9회말 선두타자 유민상이 안타로 출루에는 성공했지만, 후속타로 불발로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돌아갔다.

롯데 방출 선수에서 KIA 선수로 제2의 야구 인생

을 연 김재열이 10·11회 마운드 싸움을 이끌어 줬다.

10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김재열이 11회 2사에서 로맥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대타 남태평양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하지만 12회 세 번째 이닝에서는 이재원과 김강민에게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이어 김민준의 번트 때 투수 양승철의 1루 악수구가 나왔다. 또다시 KIA가 수비 실수로 실점을 했

고, SK에 리드를 내줬다.

KIA의 실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바뀐 투수 김명찬이 볼넷을 기록하면서 1사 만루, 폭투 때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공을 잡은 김민식이 홈커버에 들어온 김명찬에게 악수구를 하면서 순식간에 베이스에 있던 주자들이 모두 홈에 들어왔다.

이와 함께 경기는 SK 쪽으로 기울었고, KIA의 5강 싸움도 저물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아쉽다! 브룩스

'KBO 9월 MVP' 2위...1위 양의지, 모교 무등중에 100만원 기부

'미스터 올스타' 양의지(NC)가 KBO리그 9월 MVP에도 이름을 올렸다.

팬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 결과 양의지가 KIA 브룩스를 제치고 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양의지는 기자단 투표에서 30표 중 20표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다. 팬투표에서는 2위(19만 3060표 중 3만1209표 획득)를 기록한 양의지는 총점 41.42로 36.73의 브룩스를 제치고 처음 KBO 월간 MVP가 됐다.

브룩스는 팬투표에서 10만9635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기자단 투표에서 밀렸다.

양의지는 9월 25경기에서 나와 8개의 홈런을 터뜨리면서 32타점을 쏟아냈다. 타점·장타율(0.673) 1위, 홈런 2위를 기록하면서 팀 선두 질주를 이끌었다. 또 양의지는 9월 24일 창원 LG전을 통해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3개) 타이 기록을 올렸다. 양의지는 지난 4일 삼성전선을 통해 개인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9월 MVP에 선정된 양의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함께 60만원 상당의 신한은행 골드바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양의지의 모교인 무등중에는 1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태훈 우승·상금왕 두토끼

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

김태훈(35)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훈은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파72-73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4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를 기록한 김태훈은 2위 이재경(21)을 2타 차로 따돌리고 투어 통산 4승째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 3억원을 받은 김태훈은 시즌 상금 4억6663만원으로 이번 대회 컷 탈락한 김한별(24)의 4억1774만원을 제치고 상금 1위가 됐다.

김태훈은 2013년 보성CC클래식과 2015년 카이도골프 LIS 투어챔피언십, 2018년 동아회원권 그룹 부산오픈에 이어 코리아투어에서 4승째를 따냈다.

/연합뉴스

안나린, 4년 만에 '포텐'

KLPGA 오택캐리어서 생애 첫 우승

안나린(24)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데뷔 4년 만에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안나린은 11일 세종시의 세종필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택캐리어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6언더파 272타로 정상에 올랐다.

우승 상금 1억4400만원을 받은 안나린은 상금랭킹 20위에서 7위(2억7095만원)로 경종 뛰었다.

안나린은 지난 3년 동안 상금랭킹이나 평균 타수에서 30위 이내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많은 연습량을 소화하며 실력을 쌓아온 안나린은 2, 3라운드에서 출전 선수 평균을 7타 이상 뛰어넘는 압도적인 스코어를 내는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고대하던 챔피언의 반열에 올랐다.

/연합뉴스

형제대결 보다 더 뜨거운 '엄원상 vs 송민규'

오늘 벤투호-김학범호 2차전

영플레이어상 장외 경쟁 흥미진진

'장군명군'을 주고받은 벤투호와 김학범호가 12일 두 번째 만남을 갖는다. 광주 엄원상과 포항 송민규의 '영플레이어상' 장외 경쟁도 재개된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A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지휘하는 올림픽 대표팀이 12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스페셜 매치 2차전을 벌인다.

지난 9월 24일 만에 전개된 국가대표-올림픽대표의 맞대결은 2-2 무승부로 끝났다.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이 맞붙은 것은 1996년 4월 21일 잠실운동장에서 열린 박종환호와 비소베츠호의 경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대결은 코로나19로 국제대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선수들 기량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코로나 19로 해외파들의 합류가 어려워진 만큼 K리거들이 눈도장을 찍는 무대가 됐다.

'영플레이어상' 후보의 자존심 대결도 축구팬들의 눈길을 끈다.

김학범호의 개근생 엄원상과 처음 연령별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송민규가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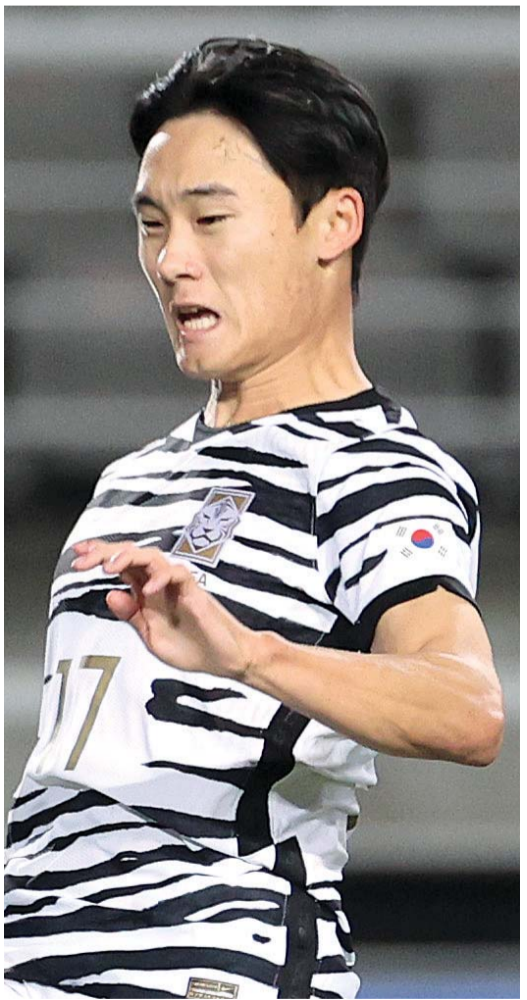
지난해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엄원상은 K리그1 데뷔 시즌인 올 시즌 7득점 2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부상으로 개막 4경기 만에 처음 그라운드를 밟은 엄원상은 '강적' 울산상 상대로 시즌 첫 골을 장식하며 3연패 중이던 팀의 1-1 무승부를 이끌었다. 이후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장식하면서 팀의 기적 같은 파이널 A 진출을 이끌었다.

송민규도 포항이 자랑하는 특급 미래다.

데뷔 첫해인 2018시즌 R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뒤 올 시즌에는 팀의 주축 선수로 역할을 하며 10득점 5도움을 올렸다. 대표팀 소집 전 치른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결승골 주인공이 되면서 갈 길 바뀐 전북의 발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1차전에서도 눈에 띄는 자원들이었다. 이주용(전북)의 골로 올림픽 대표팀이 0-1로 뒤진 후반 4분 송민규가 먼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



엄원상



송민규

다. 페넬티지역 왼쪽에서 A대표 수비수 3명을 뒤로 하고 왼발슛을 날리면서 승부를 1-1 원점으로 돌렸다.

송민규가 자신의 장기인 저돌적인 돌파를 유감없이 보여준 장면이었다.

국가대표팀 권경원(상주)의 자책골로 2-1로 앞선 후반 19분에는 엄원상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엄살라'의 위용을 과시했다.

후반 14분 조영욱(서울)과 교체해 들어간 엄원상이 중앙에서 공을 넘겨받은 뒤 그대로 공을 몰고 문

전까지 내달렸다. 마지막 순간 권경원을 속이고 골키퍼까지 미주했지만, 조현우의 선방에 막혔다.

특정까지는 장식하지 못했지만 엄원상은 특급 스피드로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

경기는 후반 44분 터진 A대표팀 이정협(부산)의 골로 2-2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형님들에게 밀리지 않은 모습을 보인 엄원상과 송민규가 두 번째 대결에서도 치열한 내부 경쟁 속 올림픽 대표팀의 승리를 합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